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155

JCCT 2020-2-19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xperience of Parents Who Moved to Rural Villag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신미숙*, 길양숙**

Shin, Meesook* & Kil, Yangsook**

요약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전원마을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전원으로 이주하는 것은 특이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원마을로 이주한 초등학교 학부모 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경험에서 30개의 주제, 8개의 주제묶음과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전원 이주 학부모의 행동을 설명하는 대주제는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 '소통과 공감의 경험', '자녀의 행복 중시 교육' 등이다. 그 하부에 속한 8개의 주제묶음은 '아파트의 답답한 환경이 싫음', '어릴 적 전원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중시함', '자유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원 환경',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경험', '부모 욕심으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후회', '아이 중심 교육 중시', '인성과 예체능 중심의 자기공부 지향' 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자녀교육 경험이 교육실체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전원마을, 학부모, 자녀교육, 질적 연구

Abstract We extracted the meaning of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parents who moved to rural villag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While moving to the cities for the children's education is general trend, moving to the rural village for the children's education is peculiar phenomenon.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parents who moved to rural village, and the statements were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of Colaizzi. As a result, thirty themes, eight theme clusters, and three meaning categories were extracted. Three categories which characterize the experience of parents who moved to rural village for their children are 'longing for nature-friendly life in rural area', 'positive experience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neighbors', and 'children's happiness-centered education'. Eight theme clusters are 'dislike confined environment of an apartment', 'positive experience of childhood in the countryside', 'valu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variety', 'free and stimulating environment of countryside', 'experience of communicating and empathizing with neighbors', 'regret private education caused by parents' greed', 'value child centered education', 'yearn for the self-directed learning around character and art-physical abilities'. Based on the result,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follow-up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Rural Village, Parents, Children's Education, Qualitative Study

*정회원, 강원대학교 교육혁신원 박사수료 (제1저자)

**정회원,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0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25일

Received: December 31, 2019 / Revised: January 15, 2020

Accepted: January 25, 2020

**Corresponding Author: yskil@kangwon.ac.kr

Dept.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학부모는 높은 교육열을 보여왔다. 교육이 출세와 가문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전통은 오늘 날에도 명문학교 입학에 온 집안이 매달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의 학업지원이라는 인식이 공공연하고,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의 학교 입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고, 원하는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곳으로의 이주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 [1]. 2017년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일반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 수는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많았으며, 강남구는 서울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생(586명)의 24.1%인 141명을 배출했다 [2]. 이와 같은 현상은 '강남'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행동 및 인식에 관한 연구를 촉발하였다 [3-5].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심에서 전원으로 주거환경을 바꾸는 학부모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편안함과 교육 인프라를 뒤로하고 전원주택을 찾아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은퇴를 앞두고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50, 60대 장년층이 전원주택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여유로운 전원의 삶을 추구하는 30~40대의 젊은 세대가 주 수요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녀교육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전원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마을은 자녀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이런 이주 현상은 의외이다. 따라서 전원마을 거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지원 등은 도시민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의 일로서 이런 문화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신념이나 교육 지원 행동에 대한 연구는 강남 학부모나 영재고와 특목고 학부모에 치중되어 있고, 공교육 외에 대한 연구는 대안학교나 홈스쿨 학부모에 대한 연구조차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전원마을 이주자들의 경험은 기존의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입시중심의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우선 이들의 경험의 의미를 질적 연구를 통해 충실히 밝히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가 드러낼 문제의 다면성은 교육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결책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런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전원마을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녀교육 관련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한 주관적인 경험과 그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를 잘 수행하려면 적절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들의 함축적인 의미를 서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이를 위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7], 현상학적 자료 분석을 이끄는 원리에 충실하도록 Colaizzi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6][8].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전원마을에 이주하여 함께 살고 있고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 반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전원마을에 이주한 부모들 중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학부모 5명과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부모 1명을 심층면담을 통해 하였다. 면담은 2017년 9월~12월까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비밀유지, 기본 면접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이 편안하다고 여기는 참여자 자신의 집에서 30분~90분 동안 진행하였다. 면담에서는 전원마을 이주 계기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험, 이주 후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2) 자료분석

자료는 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9]. Colaizzi 방법은 참여자 개인의 속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전체 참여자의 공통 특성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면담 녹음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그대로 필사하고, 면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필사자료(protocols)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

2단계: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을 찾고 자 의미 있는 내용에 줄을 그어 표시하여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3단계: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 한다.

4단계: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을 이끌어낸다.

5단계: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clusters)으로 범주화(category) 한다.

6단계: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명확하고 본질적인 최종적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III. 연구 결과

면담자료에 나타난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자녀교육경험을 나타내는 의미진술은 82개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주제는 30개, 주제 묶음은 8개, 그리고 범주는 3개였다(Table 1). 즉, 전원마을 이주자들이 현재와 같

은 자녀교육을 실천하게 되기까지의 경험은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 '소통과 공감의 경험', '자녀의 행복 중시' 등의 가치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

전원마을로 이주하여 사는 학부모들이 이주를 결심하게 된 기저에는 연구결과의 첫 번째 범주인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이 범주에는 '아파트의 답답한 환경이 싫음', '어릴 적 전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중시함', '자유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원환경'이라는 4개의 하위 주제 묶음이 있었다. 즉, 학부모들은 아파트에서의 삶이 답답하였고, 동시에 대안적인 환경으로 자신의 어릴 때 살았던 전원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그런 자연친화적 환경이 주는 자유로움과 호기심 넘치던 기억은 이런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였고, 참여자들이 전원마을로의 이주하도록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론의 바탕이 된 참여자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에 싫증을 느꼈어요. 아파트 숲에 사는 것이 뭔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홍00, 2017, 12).

아파트가 싫었어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분명히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내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싫었어요.(최00, 2017, 12월).

아파트는 목적에 의해 관계를 맺는 것이 싫었어요(김00, 2017, 11월).

전원으로의 이주를 촉진한 두 번째 범주는 어릴 적의 전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과 놀았던 것을 기억하며 좋아했다. 이런 경험이 긍정적으로 각인되어 자녀에게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유년 시절에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자랐던 향수와 조용한 것이 좋았어요. 밤이면 캄캄해야 하고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밟고 사는 것이 좋아요(최00, 2017, 12). 어릴 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내 아이도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었어요

요(김00, 2017, 12).

셋째, 학부모들은 전원에서의 다양한 직접경험이 창의력을 키우고, 좋은 정서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원주택의 삶은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책을 통한 간접 경험도 중요하게 보았지만, 자연을 접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직접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기를 원하였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김00, 2017, 11).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나가려고요(장00, 2017, 11)
다양한 직·간접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고 싶어요(최00, 2017, 12).

넷째, 흙이 있고, 마당이 있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전원주택의 입체적 자연환경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 열고 나가면 마당인 것이 너무 좋아요. 흙이 있고 마당이 있는 정서가 좋아요(김00, 2017, 11).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어서 좋아요(기00, 2017, 11).

표 1.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자녀교육경험

Table 1.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who moved to rural village

Themes	Theme-clusters	Categories
Confined Apartment	Dislike Confined Environment Of An Apartment	
Limited Life In An Apartment		
Stress By Noise From Up And Down Floors		
Dislike Dense Structure Of The Apartment		
Want The Children Experience Life Of Countryside	Positive Experience Of Childhood In The Country	Yearn For The Life In Countryside
Liked The Life Of Childhood Playing Freely In The Nature		
Liked The Life Of Childhood In Stimulating Environment		
Value Indirect Experience From The Books	Valu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Variety	
Value Direct Experience		
Value Creativity Through Various Experiences		
Country House Provides Various Experiences	Free And Stimulating Environment Of Countryside	
Like Emotions From Dirt And Playground		
Like Playing Freely		
Life In Country House Provides Stimulating Environment	Experience of Communicating And Empathizing With Neighbors	Experience Of Communicating And Empathizing
Being Able to Live With Various Age Groups		
Being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Neighbors		
Sharing The Life With Open Mind		
Neighbors Become The Teachers	Regret Private Education Caused By Parents' Greed	
Like The Aspect Of Helping Each Other		
Forced Private Educations Before And After Entering School		
Regret Private Education Caused by Parents' Greed	Value Child Centered Education	Value Education Focused On Children's Happiness
Experienced Private Education In Art, Physical Fitness, And Many Subjects		
Want The Children To Be Happy		
Want An Education That Makes Children Enjoy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Yearn For The Self-directed Learning Around Character And Art-physical Abilities	
Want An Education That Children Want		
Will Support Art And Physical Fitness If The Child Want		
Prefer Art And Physical Education To Subject Education		
Value Character Education Over Subject Education		
Consider School Education As Useless		
Think Self-directed Education As Real Education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다양한 자연환경이 많아
요.(김00, 2017, 11).

참여자들은 이처럼 과거의 아파트에서의 삶에 대한 회고와 본인이 겪었던 유년시절의 좋은 경험, 그리고 전원주택의 자연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직·간접 경험, 그리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전원마을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통과 공감의 경험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가 이주 후에 경험하는 전원 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웃과의 소통과 공감’이다. 전원에서의 삶은 이웃과 많은 것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전원마을로 이주한 후 아파트에서의 생활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웃과의 공감과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이웃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런 경험은 아이를 온 동네가 함께 키운다는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개인적인 삶으로 대변되는 아파트의 삶과는 달리 여러 세대의 삶을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전원마을에서의 경험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교육경험으로 간주되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일상을 나누는 것이라 좋아요. 자연스럽게 열린 생활을 하게 되어 좋고요.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도 있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아파트는 목적에 의해 모이지 삶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마음도 열리고 삶도 공유하면서 소통하게 되는 것이 좋아요(김00, 2017, 11).
전원마을에 오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기00, 2017, 11).

이웃이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전원마을에서는 이웃을 통해 다양한 관계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김장도 함께 하고, 좋은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경사와 애사를 함께 하면서 이웃끼리 돕고, 배려하고, 나누며,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어른이 스승이 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좋게 평가되고 있었다.

집에서는 나만 엄마인데, 여기서는 동네 어른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아요(김00, 2017, 11).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동네 어른들과 어떻게 서로 돕고 사는지 보여주게 되어 좋아요(기00, 2017, 11).
다양한 관계만큼 발생하는 여러 갈등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김00, 2017, 11).

참여자들은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이웃과의 공감을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삶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핵가족 시대에 다양한 세대와 어우러지면서 어른에게 배우고, 친형제보다 각별한 이웃사촌으로 살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3. 자녀의 행복 중시 교육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인식 중에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자녀의 행복을 중시하는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범주는 ‘부모의 욕심으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후회’, ‘자녀의 행복 우선’, ‘인성과 예체능교육 중점’ 등 세 개의 하위 주제묶음을 포함한다.

이런 인식의 발생은 우선 참여자들이 ‘학령기 자녀에게 많은 사교육을 시킨 것을 후회’하는 데서 시작한다.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자녀가 많은 사교육 속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학부모는 자신을 돌아보며 불안감을 내려놓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첫째 때는 예능 쪽으로 미술, 발레, 바이올린 등등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구요(홍00, 2017, 12).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첫 방학에 과외만 6개 시켰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생각으로 시켰어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엄마 욕심이 좋다는 것은 다 시켰어요. 문득 아이의 일기를 보다가 방학인데 낮에 잠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보고 충격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김00, 2017, 11).

둘째,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이가 원하는 교육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

었다. 즉, 부모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교육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아이 중심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조금 더 크기 전에 뛰어 놀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릴 때의 행복한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기00, 2017, 11).

힘들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해하면 좋겠어요(기00, 2017, 11).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좋아요(최00, 2017, 12).

마지막으로 자녀의 행복이 중심이 되는 교육에서 참여자들은 그 방법으로 경쟁구도 속에서의 지식 학습 위주의 교육보다 인성교육에 더 가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사교육도 지식의 학습 위주가 아닌 예체능을 통해 감성을 기르고자 했고,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체능은 아이가 원하면 계속 지원해줄 생각이예요. 학습보다는 예체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기00, 2017, 11).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면서 예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홍00, 2017, 12). 학교공부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2년의 공교육을 받지만, 주입식으로 습득된 지식은 막상 사회에서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지식과 실력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장00, 2017, 11).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공부 말이에요(장00, 2017, 11).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전원에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가 행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교과학습 위주가 아닌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원마을 이주자들의 이주 계기는 아파트의 답답한 삶으로부터의 도피, 전원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에게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한 후에 아이들이 고통 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주 후 경험한 이웃과의 소통과 동네 주민이 스승이 되어주는 만족스러운 경험은 교육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켰고, 학부모들은 예체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녀가 행복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도록 대안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전원마을로의 이주 후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이들에게 삶과 교육에서 만족 혹은 불만을 주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연구결과에서 추출한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생활은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질 때 누릴 수 있는 효과, 도시에서 결핍되었던 만족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마음껏 놀게 됨으로써 아이들은 호기심을 찾았고, 정서가 풍부해졌고, 행복해했으며, 생활과 유리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공부, 창의력을 키우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결핍을 전원생활이 메워줌으로써 전원마을의 부모와 학생들은 변화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원생활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소통하지 않는 아파트에서의 삶 대신 이웃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원마을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스승의 역할을 하고, 마음을 열었다. 이와 같은 삶의 형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소속감, 사랑과 인정에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행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원생활은 사는 공간과 교육하는 공간이 분리된 도시의 생태 대신 소통과 왕래를 통해 일상에서의 삶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삶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삶, 즉, 일상이 곧 교육적인 경험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런 경험은 교육을 위해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는 수고로움과 자녀교육의 장에서 소외되는 부모들의 소외감과 불안을 덜어줌으로써 만족감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교육으로 인한 공부 스트레스에 고통 받던 아이들은 전원생활에서 행복한 정서를 회복하였고,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바른 아이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이 추구하는 고귀한 목표이면서 사교육 중심의 지식교육으로는 얻기 어려운 측면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게 되었고, 자녀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에 귀를 기

올이기 시작했다. 전원에서의 공유된 삶을 통해 갖게 된 긍정적인 경험과 정서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행동도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 연구결과가 연구와 교육실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비주류 운동, 즉, 교육경쟁을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육경험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거의 교육열에 대한 담론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대안 없는 행동으로 보았다면, 이 연구는 다른 행동방식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영향요인에 대한 심화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배경이 된 전원마을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밥이나 혼술이 트렌드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델로 주목할 대상이다. 이 연구의 전원마을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공동체로서 자녀의 행복을 지지하는 교육, 자연 환경에서의 교육, 체험을 통한 교육,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 삶과 얽히어 일치하는 교육, 예술 및 인성 교육과 가정교육이 우선시되는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드물어서 연구할 가치가 높다. 따라서 자생적인 전원마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시와 가까운 전원마을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녀의 학교급이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도시와 거리가 있는 전원마을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전원마을 이주 학부모의 자녀교육경험이 대상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신념과 자녀교육지원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교육내용과 목표에서 자녀의 흥미와 발달속도에 맞는 교육을 중시하는 유아를 둔 지방 중소도시의 부모들의 생각과 행동 [10], 그리고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이 출세와 진학보다는 인성과 예절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11]. 이런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농촌지역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유사한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해석은 학원과 내신, 학습 분위기, 입시에 도움이 될 사회 관계망을 확보하려는 도시 학부모들의

전략이 대학입시가 압박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교육관과 자녀 교육 지원행동도 인성교육과 예체능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의 선호를 더 반영하고,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전원 마을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중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유지되는지를 연구해야할 필요를 제공한다.

V. 결론

전원마을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으로서 이런 시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전원마을에서의 생활과 교육은 도시적인 삶과 교육 형태에서는 누리기 어려웠던 행복한 삶을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 예체능 교육, 인성교육을 가정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대도시나 중소도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신념과 자녀교육 지원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데 비해 이 연구는 그런 영역과 행동의 다양성을 보다 꼼꼼히 비교하기에는 면접내용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급, 부모의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 S. Lee, Parents' Perceptions of Education and Migration: Analysis of Interviews at Parent-Teacher Conference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2), 5-30, 2010.
- [2] Segyeilbo, M. S. Song, Prestigious Middle School "Going to Prestigious Middle School Ensures Going to Prestigious University." Depressed self-portrait,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17003559?OutUrl=naver>, 2017.11.18.
- [3] J. Y. Kang, Parents' Educational Consciousness and Choice of the Early Studying Abroad for their Chil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4] K. S. Kim, A study on Gang-nam parents' supports and beliefs system influencing their children's school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09.
- [5] H. R. Kim, Cultural Capital, Child-Rearing, and

- Education Practice of Parents in Low Graders in Elementar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5.
- [6] B. H. Kim, K. J. Kim, I. S. Park, K. J. Lee, J. K. Kim, J. J. Hong, M. W. Lee, Y. H. Kim, I. Y. Yoo, and H. Y. Lee,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028-1220, 1999.
- [7] S. H. Kim and J. T. Brady,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of the Korean Baby Boomer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7(4), 172-186, 2019.
- [8] M. S. Song and K. M.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4(2), 43-52, 2018.
- [9]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10] H. S. Park and K. R. Park, A Study on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 Family Welfare Study*, 2, 79-101, 1998.
- [11] B. S. Kim, Rural Mothers' Expectation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heir Educational Support,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2003.